

코로나 19 관련 사기

- 사기꾼을 조심하세요

사기꾼들이 코로나19 자택대기령 발동 기간 중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립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. 정부 관료, 은행 직원 또는 의료전문가를 사칭한 사기꾼들을 경계하십시오. 이들은 여러분의 돈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, 메디케어 번호, 신용카드 정보 및 은행 계좌 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.

주요 사기 수단

[전화 | 소셜미디어 | 이메일 | 웹사이트 | 직접 사기]

- 흔한 사기수법

- 가짜 호흡기 마스크, 코로나19 검사 또는 백신 키트, 코로나19 치료제 판매
- 자선단체 기부 요청. 자선단체는 give.org 또는 charitynavigator.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경기부양 보조금 계좌 입금 약속
- 코로나19로 인해 소셜 시큐리티 수표 입금이 취소되어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함
-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“구제 기금” 제안
- 가족이나 친지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 비용을 송금해야 한다고 주장
- 세계보건기구(WHO),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 또는 자원봉사단체 직원을 사칭한 연락
- 코로나19 관련 소식 제공용 추적성 앱 다운로드 요청

- 노인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하세요

주변에 노인 학대의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샌프란시스코 성인보호 서비스 415-355-6700(연중무휴 24시간)으로 신고하세요.

- 위험 신호

- 급한 요구: 사기꾼들은 “시급(urgent)”, “당장 조치를 취하세요(act now)”, “중요(important)”, “공식(official)” 등의 단어로 바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합니다.
- 계좌이체나 기프트 카드를 통한 지불 요구
- 소셜 시큐리티 번호, 메디케어 번호, 신용정보 또는 계좌 정보 요구
- 출처를 알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곳으로부터의 링크
-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, 이메일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연락

- 개인 이메일 주소에서 발송된 이메일 – 야후, 핫메일, Gmail, AOL 등에서 발송된 이메일을 유의하세요.
- 중요한 코로나19 관련 뉴스나 정보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웹사이트. 이런 웹사이트는 컴퓨터를 손상시키거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
- 인증되지 않은 앱: 이런 앱은 핸드폰을 잠금 상태로 전환해 데이터를 도용할 수 있습니다.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인증된 발행처의 앱만 다운로드 하세요.

- 법률 상담

Open Door Legal — opendoorlegal.org/ 415-735-4124

Bay Area Legal Aid — baylegal.org/ 415-982-1300

Legal Assistance for the Elderly — laesf.org/ 415-538-3333

Housing and Economic Rights Advocates (HERA) — heraca.org/ 510-271-8443

California Advocates for Nursing Home Reform (CANHR) — canhr.org/ 415-974-5171

San Francisco Office of the District Attorney Victim Services Division (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실 피해자 서비스과) —

sfdistrictattorney.org/victim-services-division/ 628-652-4000

- SF베이지역 한국어 서비스 기관

Bay Area Korean Infoline (BAKI) 소셜/이민 서비스 정보 및 이외의 유용한 서비스 연결제공
1-884-828-2254

API Legal Outreach 이민법, 하우징, 가정폭력, 인신매매, 오닌법 (한국어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) 415-567-6244(SF) / 510-251-6846

Bay Area Legal Aid 학자금, 신용카드 대출, 크레딧문제, 사기 등 관련한 법적자문
855-693-7258

Asian Women's Shelter 가정폭력으로 피해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 ('코리안이라고 말씀하신뒤, 번호를 남겨주세요') 1-877-751-0880

출처: Institute on Aging, Open Door Legal, Jennifer An